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골 먼서기인 남편이 살기가 등등 아내를 잡을 듯 난리를 치고 있다.)

남편 : 예수한테 미쳐두 보통미친 것이 아녀! 우리 형편에 건축 헌금을 5백만 원을 허겠다고 약조를 했다고? 제 정신으로 한 일이었?

아내 : 미안허유! 50만원 험다고 적은 것이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렸내유.

남편 : 오이구... 미련한 것이 똑똑치도 못허지! 5백만원이면 내 월급이 몇 달치줄 알었? 미쳐도 곱게 미쳐라! (노환중인 노모가 건넌방에서 기어오듯 들어서며)

노모 : 아범아!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내구서라두 아범 니가 구원받으면 어미는 거기서 더 바랄 것이 없다!

남편 : 5천만원 내구 9원을 받아요? 식구들이 이렇게 돈 계산이 흐리니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거라구유! 그리구 돈 바치구 9원 받으라구 목사님이 그렸어유? 그럼 그 목사두 틀린 목사예유!

아내 : 그런 말씀 말어유. 목사님이 교회지라구 명령하신게 아네유. 우리가 고사리 꺾어와 팔아서 교회 짓기루 한 거여유! 내는 동네서두 고사리 잘 꺾기루 소문이 났으니께 더 많이 꺾어서 바칠 것이구유.

남편 : 대한민국 고사리 다 꺾어두 5백만원은 못 맵글어! 당장 교회가서 5백만원은 동그라미 실수라구 말헛!

아내 : 낸 못해유! 무식한 것이 무식허서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서 시험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어 어린히 알아서 실수를 허셨것어유.

노모 : 아범아 부탁이구먼! 아범 위허서 30년을 기도를 해 왔구먼. 마지막 효도다 생각허구 하나님 뜻을 따라 줄 것이어.

남편 : 아이고 어머니, 우리 텃밭을 팔아두 5백만원은 안되유.

아내 : 당신한테 돈 내노라구 누가 험나유? 지가 평생 고사리 꺾어서라두 5백만원 맵글어 놓을데니께유 걱정노셔유.

남편 : 아이구 이 무식한 여자야. 건축헌금 많이 험다구 돌덩이가 금뿔이가 되냐? (이튿날부터 아내는 부지런히 고사리를 꺾으러 다니고 노모는 앞드려 기도한다. 일주일 지난 토요일 오후, 일찍 퇴근한 남편이 우물가에서 밭을 씻고 있는데 아내가 뛰어들며 소리친다.)

아내 : 영준이 아버지유! 영준이 아버지유! 나 좀 봐유! 나 좀 봐유!

남편 : 흥! 오라지게 보고싶은 얼굴 보라하네!

아내 : 이거봐유! 영준 아버지! (고사리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며) 영준 아버지 이게 뭘줄아서유?

남편 : 그게 뭐여, 도라지 아닌게버!

아내 : 도라지 아녀유. 산삼 뿌리여유! 산삼 뿌리유!

남편 : 산-삼?

아내 : 야! 산삼을 여섯뿌리나 캬어유! 자 보셔유!(더 큰 산삼뿌리 다섯개를 꺼내 보인다.)

남편 : 와우- 와우- 이거 진짜 산삼이네에! (더 크게 비명) 와우- 와우-진짜네에! 진짜 산삼이네에!

아내 : 영준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 허라구 주신거예유! 그췌? 맞췌?

남편 : 성전 건축?

아내 : 야! 고사리만 꺾어서 안되겠다 싶으니께 산삼을 캐게 하신 거예유! 안그췌?

교회목표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칭 -명예
제 4권 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3월 31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부활의 아침에느끼는 향기



나는 어릴때 비빔밥을 자주 먹곤 했는데 어머님은 밥을 비벼 먹을때마다 참기름을 조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묻혀 주셨다. 기름병을 기울여 기름을 손가락에 조금씩 따르다가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여지없이 다시 기름병 속으로 들어갔다. 참기름!

정말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다.

'이렇게 냄새가 좋은 물건은 비싼가 보다 했었다.

나이를 조금 들어 청년때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에게 향수를 선물하려고 했더니 정말 향수 한병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것이였다. 그래서 제일 싼 향수를 사서 주었지만 별로 좋지 않은 향수 사주면서 티낸다고 오히려 면박만 받았다.다시 한번 '냄새가 좋은것은 값이 비싸다'라는 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였다.

그런데 얼마 전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아주 그윽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천지가 가득하게 풍겨나는 것이였다.그것은 아카시아꽃 냄새였다.

조금의 냄새도 아닌 온천지 가득한 향...!!!

이렇게 비싼 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이다. -조재호-

남편 : (얼굴이 금방 벌레 썩은 얼굴이 된다.)  
아내 : 당신, 이래두 하나님 살아가신걸 안 믿어유? 못 믿어유? 당신은 못 믿어두 엄니는 믿으셔유! (노모 방으로 뛰어들며) 엄니! 엄니! 하나님이 건축 헌금 주셨어유!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노모가 앞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셨다. 아내가 급히 남편을 불러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게 한다.)  
남편 :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 친다.) 엄니! 정신차리셔유! 엄니, 정신차리셔유! 불효자식 엄니 소원두 못들어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세웁! 얼렁 깨어나셔유, 엄니! (노모의 얼굴에 얼굴을 부비며 통곡을 터뜨린다. 노모의 장례식이 끝나고 삼일 후에 어머니 산소를 찾은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마디 한다.)  
남편 : 엄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 기도를 하셨을꺼구먼.  
아내 : 암만유... 30년을 그러셨으니께유!  
남편 : 야! (울을 섞인 목소리로) 나 이 달 말에 적금 타... 5백만원 짜리여! 엄니 이름으로 내 드리여!  
-주부편지 7월호 중에서-

# 주 일 예 배

## Jesus is Alive - Are you?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1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2(부활절)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55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이지영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5:1-81(신 282)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니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찬 송 Hymn	159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 헌 금 기 도 Offer 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3월,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 일 안 내
31일	이지영	김동숙	김성국, 임성광	정덕수, 김순자
7일	양경배	김영길	최재학, 정덕수	최재학, 정희자
14일	윤형권	김순자	전병주, 권용일	권용일, 이지영
21일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 김영길	박병민, 이기중
28일	정덕수	노은숙	김종건, 박기원	박정자, 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 교 회 소 식

- 구주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 예배 후 Hall에서 식사친교를 나눕니다: 특선예뉴 "Calvary rice hash"
- "이삭줍기"와 고난주간 금식헌금  
\*이삭줍기와 금식헌금은 '기아어린이 2명'(필리핀, 태국)의 후원금으로 보내집니다. -이삭줍기는 Silver coin으로 드립니다
- 정기월례회: 남선교회 월례회(홀수달 마지막주 금요일)
- 아동부 야외예배(예고)  
\*일시: 다음주일 예배 후 오후 1시 \*장소: Tahaki Reserve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예고): 등록교우 의무과정입니다  
\*일시: 4월 18일(목)부터 4회 목요일 \*대상: 작년 10월 이후 등록교우
-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기증을 기다립니다  
\*운영 관리: 권용일, 박병민, 윤형권 집사  
\*신앙, 교양서적, 동화책, 태요(성가, 가곡등), VTR테잎등의 기증을 바랍니다.
- "저희 결혼해요♡":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믿음의 부~~자 되세요. 꼭이요!  
\*한 건 집사, 나 진 성도.  
\*일시: 화요일(2일) 저녁 5시 \*장소: 본당



- 교우소식: 윤형권, 신영화 집사 보험업무 개시(자동차 보험등..)
-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송영철 집사, ☎ 486-1277 ☒ 1E Park Ave. Takapuna  
\*정관영, 황경임 집사, 상호, 상현 ☎ 443-7478 ☒ 15 Cashmere Pl. Glenfield  
<4월의 교회력>

일자	교 회 력	모 입
7일		당회(8일), 구역예배(12일)
14일	식사친교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6일) "약속의 아버지" 기도회 (18일)
21일	교환강단주일(주님의교회)	
28일	사랑의실천 "이삭줍기"	교사기도회(3 May)

<b>엄마가 딸에게</b> 허를 조심하거라. "방금했던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란 말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하기전에 그 말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해 먼저 생각해라	<b>아버지가 아들에게</b> 심는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분명한 원리가 있다 노력을 심고 정직을 심어라 많은 땀이 많은 결실을 얻게 할 것이다
--	---